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Acquisition Policy for Young-nak Church's Archives

이 은 진 (Eunjin Lee)*

이 유 진 (Yujin Lee)**

윤 은 하 (Eunha Youn)***

목 차

1. 서 론	3.1 수집현황
1.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2 수집 절차
1.2 선행연구	3.3 기록물 분석
2. 교회 기능과 교회기록물 유형 및 특징	4. 영락교회 수집정책 개발
2.1 교회 기능	4.1 영락교회 기록관 수집정책 개발
2.2 교회조직 특성에 따른 기록물 특징 및 유형	4.2 교회기록관 수집정책 개발시 고려사항
3. 영락교회 기록관 현황	5. 결 론

<초 록>

교회기록관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성도들의 영적유산을 계승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교회의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과 교회의 신앙적 인물들의 기록물들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 교회만의 다큐멘테이션을 형성하여 일관적인 수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회 기록관의 수집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집정책은 기록물 선별을 위한 토대이자 기록관의 기록물을 구성하는 체계적인 지침이다. 수집정책을 통해 교회 기록관은 수집의 범위와 우선적으로 수집할 기록물의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 기록관을 대표하여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을 위해 교회의 특징 및 기록관의 수집정책에 관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담당자 면담을 시행하였다.

주제어: 교회 기록, 교회 기록관, 수집정책

<ABSTRACT>

A church's archives aims to preserve the history of the church and inherit the spiritual legacy of Christianity. It also plays critical roles in strengthening the identities of the church members. As such, this study focuses the role of a church archive and, in particular, its acquisition policies. An acquisition policy is the foundation of archival records management, which is achieved by balancing the scope of the collection and collecting various record types. For this, the authors analyzed the acquisition process of Young-nak Church's archives and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archivists.

Keywords: church records, church archives, acquisition policy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won-bin1104@hanmail.net) (제1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dbwls3119@naver.com)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조교수, 문화융복합 아카이빙 연구소 연구원(eyoun@jbn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5년 5월 1일 ■ 최초심사일: 2015년 5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5년 5월 27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137-164, 201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2.137>>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공공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역사가 오래된 중대형 교회에서는 기록관을 설립하여 중요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교회 기록관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구성원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교회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과 교회의 신앙적 인물들의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서비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 기록관을 통해 소속교회의 역사를 공유하여 상호 결속력을 높이고, 교회사 연구자들은 일차적 사료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교회 기록관은 이를 위해 교회 업무 및 활동의 결과로 생산된 공적 기록과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매뉴스크립트를 체계적으로 선별, 수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교회기록관은 수집을 위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교회기록관에서의 수집은 장기적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회기록관의 기록 수집 및 관리를 염두에 둘 때 여러 가지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다. 기록관리가 수집에서부터 시작됨을 상기할 때 일관성을 갖고 수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집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체계적인 수집정책 개발은 각 교회의 특성을 고려한 다큐멘테이션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수집정책을 개발함으로써 교회는 교회 기록물

의 수집, 선별, 평가를 포괄하는 기록관리 전반에 걸친 통일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집정책은 기록물 선별을 위한 토대이자 기록물의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도구이다. 잘 개발된 수집정책은 합리적인 선별 결정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기록관의 소장물을 구성하고 평가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Ham, 1993/2002). 이러한 수집정책을 통해서 기록관은 우선적으로 수집할 기록물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기록물을 수집할 것인지 등을 규명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집정책은 교회 기록관리의 핵심적인 기능이자 다른 기록관리 활동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교회의 특징과 영락교회 역사사료관(이하 영락교회 기록관)의 수집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교회의 수집정책 개발 시 고려사항을 모색하였다. 영락교회는 50년 이상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 기록관을 구축하여 중요 기록들을 수집 관리하고 있다. 이에 교회기록물 관리에 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논문은 영락 교회의 기록물 수집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실제 교회 기록관의 수집정책을 개발, 적용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1.2 선행연구

현재까지 교회기록관 수집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제인 교회기록물과 수집정책 2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교회기록물과 관련된 연구로는 교회 기록관리의 현황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주를 이룬다. 관련 논문으로는 강순화(2003), 김선미(2004), 최유택(2010), 허은정(2007), 김영은(2013)이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교회기록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기록물의 수집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기록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교회조직의 특성 및 기록물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교회기록물의 전반적인 특징을 분석했다. 특히 김영은(2013)은 영락교회 사회복지재단의 전반적인 기록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수집 개선방안의 하나로써 사회복지재단의 수집 범위와 구술기록의 수집절차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김영은의 연구는 수집정책을 개발한 연구는 아니므로 본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다음으로는 수집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로서 구분윤(2009), 신윤희(2007), 이정희(2009), 장윤희(2005), 정은진(2011) 등의 연구가 있다. 구분윤(2009)은 대통령 기록관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해외 대통령 기록관의 수집정책 사례를 분석하였고 분석을 토대로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선정하였다. 신윤희(2007)는 김달진 문학관을 사례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수집정책을 개발하였다. 수집형 기록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관의 수집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수집활동의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이정희(2009)는 병무청 개청 40주년의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병무청기록관의 매뉴스크립트 수집을 위한 수집정책을 개발하였다. 장윤희(2005)는 대학기록관의 역사기록물 수집을 체계화시키고자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의 역사와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학기록물의 수집정책을 개발하였다. 정은진(2011)은 연극기록물의 수집방안 연구로써 연극기록물의 수집정책을 개발하였다. 수집대상으로써 연극기록물의 특성을 정리하여 연극기록물을 생산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집정책을 제시하였다. 정지연(2007)은 근현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집활동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하였다. 저자는 사례분석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써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성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한수연(2005)은 수집정책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수집정책을 보유한 53개 기관을 비교·분석하여 13개 기록물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중 4개는 수집정책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고 9개는 보완적 구성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회 기록물과 수집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영락교회 기록관의 수집정책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교회 기능과 교회기록물 유형 및 특징

2.1 교회 기능

설립 초기단계의 교회 기록관이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하기 위해서는 교회조직의 기능 및 특징에 알맞은 수집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집정책을 공식화하고 기록물을 선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경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관의 기능분석이다. 기능분석은 누가 그것을 했는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라기보다, 기관 수준에

서 조직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조사이다. 이러한 수준에서의 분석은 현대 기관의 성격과 광범위한 활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양상미, 2008). 기능분석에는 조직 내의 각 단위에 관한 간략한 행정사가 포함되며, 이 분석을 통해 기관 내 각 단위의 기능에 대한 연구와 기관에서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교회의 조직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라는 교회의 공통된 사명 및 기타 부수적인 행정 및 관리를 바탕으로 한 기능 구조(〈표 1〉)를 갖는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 따르면(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교회의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예배기능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설교, 찬양, 기도, 세례와 성찬 등을 통해 교회구성원들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예물을 드린다. 교회는 일요일에 드리는 대 예배와 수요일예배, 특별예배, 각종 기도회 등을 준비하고 수행한다. 이러한 예배 기능은 교회의 기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교회의 물적, 인적 자원의 90% 정도가 예배에 집중되어 있다. 예배는 목사, 전도사 등 사역자의 고유 영역인 동시에, 예배를 준비하고 수행하고 찬양하는 등 예배의 원활한 진

행을 위해 일반 신자 역시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선교(전도)기능은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선교는 지역을 기준으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로 나눌 수 있으며 학원선교, 병원선교, 군선교 등 선교 대상을 기준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셋째, 교육(양육)기능은 성경을 토대로 성도를 지도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경의 지식과 더불어 윤리적 삶, 가치관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유아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주일학교와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교육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교회 재직자 및 일반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제자교육, 새신자를 대상으로 성경의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새신자 교육 등이 수행된다. 넷째, 봉사(구제)기능은 초대교회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생활에서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교회의 봉사기능에는 사회구제 활동, 지역사회 봉사, 농어촌 봉사, 의료봉사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다섯째, 친교기능은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 성도간의 교제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양분화 된다.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는 다양한 종교 활동들을 통

〈표 1〉 교회의 대표적인 기능 구조

교회					
예배	선교(전도)	교육(양육)	봉사(구제)	교제(친교)	행정·관리
- 설교 관리 - 찬양대 운영 - 세례·성찬식 준비 등	- 국내 선교 - 해외 선교 - 지역전도 - 전도회운영	- 주일학교 - 청년 교육 - 평신도교육 - 새신자 교육	- 성도구제 - 사회봉사활동 - 사회구제활동	- 성도 애경사 관리 - 친교행사관리 - 교구관리 등	- 시설관리 - 차량관리 - 재정관리 등

* 한국국가기록연구원(2004). 참고

해 이루어지며 성도간의 교제는 소그룹을 구성하여 친교공동체를 형성하고 각종 애경사에 상부상조하는 활동 등을 통해 실현된다.

교회의 행정·관리 기능은 상기한 5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지원 기능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교회관리 서비스(일반행정, 교회시설 및 재정관리 등)가 포함된다. 교회 기록은 이러한 주요 활동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 절차과정에서 생산되며 각 기능별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생산 관리되고 있다.

2.2 교회조직 특성에 따른 기록물 특징 및 유형

교회는 교파와 관계없이 사명, 기능, 조직이 전반적으로 일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통적인 사명을 바탕으로 기능이 도출되고 이러한 기능을 토대로 교회 기록관리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 따르면(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교회 조직은 다른 일반 조직과 비교했을 때 조직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부서간의 경계가 명확하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회의 보편적인 사명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구조를 구성하므로 종교적인 교리 변화가 없는 한 조직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특정 목표를 위해 조직 혹은 기능을 빈번하게 바꾸는 정부나 기업 조직과 달리 교회는 본연의 사명으로 인한 현행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므로 조직의 기능 및 기능변화가 많지 않다. 또한 교회의 계층적 조직구조는 교회의 사명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분화된 기능들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교회의 각 기능들은 부서 조직과 일대일 대응관계를 가진다. 이 결과 교회내 부서간의 기능과 인력 분배에 있어 상호 중복이 없고 부서간의 경계가 명확하여 각각의 부서는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예를 들어, 선교 기능을 수행하는 여전도회부서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부서와 명확히 활동·기능면에서 구분된다. 예배 및 교회의 전체적인 행사, 각 부서의 연중행사 등은 매년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실행되므로 기록물 또한 반복적으로 생산되어 매년 동일한 주제의 기록물이 다량 생산된다(허은정, 2007).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회 기록물은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다. 문서류인 종이기록물 뿐만 아니라 사진류, 시청각류, 도서 간행물류, 신문류, 박물류 등으로 유형이 다양하다. 교회는 교회운영에 필요한 행정뿐만 아니라 종교사업과 행사 및 각 부서 자체 내에 많은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므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 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공공기록물에 비해 활용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다양한 기록물을 다량 생산하기 때문에 원활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기록물의 활용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교회조직의 또 다른 특성은 비공식적이며 비상근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교회는 공식 조직에 포함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비공식적 조직의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교회 조직은 계약적 관계가 아닌 교인간의 유대를 중시하는 가족공동체적 특성을 갖고 있기에 교회 업무처리가 '문서'보다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교회조직은 기본적으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 모두가 기록생산의 주체

로서 존재하면서 기록물을 생산 및 보존·관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회 기록은 교회의 행정 조직 등으로부터 생산되어 교회기록관으로 이관되는 아카이브즈 성격의 기록물 외에 개인 혹은 단체로부터 수집받는 메뉴스크립트, 구술 기록물 등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교회는 일반적으로 한정된 시간 동안만 비상근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회의 일반 행정과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는 상근부서는 매일 기록물이 생산된다. 하지만 교회의 예배와 각종 종교행사 등은 해당일(該當日)에만 이루어지므로 매일 반복적으로 기록물이 생산되는 일반 조직과 달리 교회는 일주일에 몇 차례씩만 기록물을 생산하며, 이러한 기록물의 생산 조차도 교회의 가족 공동체적 특징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교회 조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교회 기록물은 비간헐적으로 생산 및 수집된다. 이는 일반조직과 달리 기록물의 의무적인 생산이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행정절차를 중시하는 일반기관과는 달리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에 더 가치를 둔다. 예컨대 긴급하게 요청된 기도회나 예배 및 행사에서 기록물을 갖추기 위한 시간과 여건이 마련되기 전에 그 요청사항이 시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교회공동체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면에 가치의 비중을 두다 기록의 시점을 놓치게 되면 기록물은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교회조직의 특징은 교회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방해하며 필수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중요기록물을 포착하지 못하게 한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교회의 공통된 사명을 바탕으로 구성된 교회

조직은 다양한 교회 기록물을 생산, 수집하고 있다. 총회헌법을 통해 <표 2>와 같이 교회에서 생산해야 할 기록물을 명시하고 있다.

총회헌법은 교회의 각 조직에 따라 '당회'에서 생산·관리해야 할 기록, '공동의회' 및 '제직회'의 회의록과 재정기록, 소속기관에서 생산·관리되는 기록, 기타 기록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총회헌법에 소개된 기록물보다 광범위하다. 총회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록물은 반드시 생산되어야 할 통계표와 회의 기록 등을 나열하므로 단회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교회에서 자주 생산되는 기록이라고 보기 힘들다. 헌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 생산되는 기록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락교회의 '급여명세서', '설교녹취록', '차량일지' 등은 위의 헌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 생산되는 중요 기록물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교회 행사 관련 사진, 비디오테이프, 악보, 전자문서 등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도 중요한 기록물로 교회에서 생산되고 있다.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교회기록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조직의 비공식적인 특징으로 인해 생산된 기록물이 적시에 수집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기록물의 생산 및 수집을 위해 교회 수집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회기록관을 대표하여 영락교회 기록관의 수집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표 2〉 총회헌법에 명시된 교회기록물의 종류

조 직	기록물의 종류
당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회 회록 - 학습인 명부 - 입교인 명부 - 책벌 및 해별인 명부 -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 별세인 명부 -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 혼인 명부 - 유아 세례 명부 - 재판회록 - 고소장, 죄증설명서 - 교회통계표(노회보고용)
공동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회의록
제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직 회의록 - 재정기록
소속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 회칙 - 각 단체 기관 회록 - 사업계획안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 재산 목록 - 교회 물품 대장 - 각종 통계표 - 각 보고철 및 참고 서류철

*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2000). 『헌법』.

3. 영락교회 기록관 현황

영락교회 기록관의 수집정책을 개발하기 앞서, 먼저, 영락교회 기록관 및 기록물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영락교회 기록관은 영락교회의 부속기관으로,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영락교회 기록관은 교회역사의 복원, 사료 관리의 체계화, 한국기독교사의 정리 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기록관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적 측면에서 기존의 한경직 목사관 5층을 증·개축하여 역사자료실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1년 내내 향온·향습을 위한 시스템과 화재

발생시 진화하는 특수장비를 갖추고 있다. 조직·인력적 측면에서 65주년기념사업 역사자료실 분과위원회를 설립하고 사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였다. 역사자료실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로는 영락교회 행정장정을 기반으로 한 역사자료실규정(행정장장 제7장 40조)이 있으며, 세부 운영집으로는 사료관리 업무별 기준서와 온·오프라인 업무 매뉴얼이 존재한다.

3.1 수집현황

영락교회 기록관은 설립이전인 2009년 11월

부터 사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사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수집정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락교회 기록관의 수집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영락교회 기록관은 혼합형 기록관으로 업무상 생산된 행정 기록과 비현용 매뉴스크립트가 공존하고 있다. 매뉴스크립트의 대상은 교회성도를 포함한 개인, 타 교회 및 환경직 목사와 관련된 기관으로 주로 기증을 통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 기록은 교회 내 제직부서, 법인 및 기관,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이관을 통한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락교회는 타 교회보다 많은 법인 및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영락교회가 초기설립 시부터 봉사를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사업을 진행·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표 3>의 영락교회 수집현황은 <표 4> 등록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상세한 이해를 할 수 있다.

<표 4>는 영락교회에서 수집한 기록물을 토대로 자료를 등록한 현황이다.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영락교회 기록물은 이관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이 기증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이관을 통한 수집도 기관마다 수집되는 양이 다르다. 제직부서인

교육부와 선교부, 행정처에서는 많은 양의 기록물이 이관된 반면 북한선교부, 서무부, 재정부, IT미디어부 등의 기록물은 거의 이관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법인 및 기관에서 이관되는 기록물 또한 마찬가지이다. 법인 및 기관에서는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대량 이관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거의 이관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이관의 부서별 차이는 영락교회 기록관의 기록 이관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조직문화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영락교회에서 이관은 먼저 기록물담당자의 접촉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접촉활동을 통해 기록물담당자는 각 부서의 담당자와 이관 협의를 하게 된다. 이관협약이 이루어지면 이관협약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후 실제 이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정기 이관은 연 1회 수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관은 교회의 특성상 강제성을 띠지 않으므로 각 부서마다 이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관을 통한 수집이 아닌 기증을 통한 수집은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일반적인 수집절차에 따른 수집이다. 영락교회는 개인 및 기관으로부터 수집을 받을 시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수집활동을 진행한다. 수집계획 등을

<표 3> 영락교회 역사자료실 수집현황

	수량	비고
기증	24상자	기관 3개소, 개인 11명
제직부서	531상자	
법인 및 기관	229상자	
자치단체	1상자	
합계	785상자	

* <http://archives.youngnak.net/cybr/MainIndex.jsp> (2014. 08. 07)

〈표 4〉 등록현황

입수처		형태별 등록 사료 건수						총합			
		문서류	사진류	시청각류	도서/ 간행물류	박물류/ 기타	신문류		미분류		
기증	기관	-	-	-	-	13	-	-	13		
	개인	-	-	-	-	-	-	-	-		
이관	제작 부서	교육부	1,295	2,930	390	823	393	2	-	5,833	
		목양부	-	-	371	-	-	-	-	-	371
		북한선교부	-	-	-	-	-	-	-	-	-
		사회봉사부	144	139	2	2	6	-	-	-	293
		상담부	21	-	-	-	-	-	-	-	21
		상례부	-	-	-	-	-	-	-	-	-
		선교부	255	94	212	487	124	2	-	-	1,174
		새가족부	36	-	-	1	-	-	-	-	37
		서무부	-	-	-	-	-	-	-	-	-
		시설관리부	245	6	4	38	1	-	-	-	294
		음악부	27	144	7	4	33	3	-	-	218
		자원봉사부	1	12	3	-	6	-	-	-	22
		재정부	-	-	-	-	-	-	-	-	-
		친교부	-	-	-	-	1	-	-	-	1
	홍보출판부	-	-	556	-	1	-	-	-	557	
	행정실(담임목사)	-	-	-	-	-	-	-	-	-	
	행정처	954	38	106	269	133	4	-	-	1,504	
	IT미디어부	-	-	-	-	-	-	-	-	-	
	법인 및 기관	설악수양관	-	-	-	-	-	-	-	-	-
		영락공원묘원	-	-	-	-	-	-	-	-	-
		영락기도원	-	-	-	-	-	-	-	-	-
		영락사회복지재단	-	-	-	-	-	-	-	-	-
		영락여자신학원	-	-	-	-	-	-	-	-	-
		영락유치원·어린이집	-	-	-	-	-	-	-	-	-
		영락학원	-	-	-	-	-	-	-	-	-
		영락유지재단	-	-	-	-	-	-	-	-	-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4,305	3,555	7,100	1,539	1,343	114	-	-	17,956	
자치 단체	권사회	-	-	-	-	-	-	-	-	-	
	안수집사회	-	-	-	-	-	-	-	-	-	
총 계		2,978	3,363	1,651	1,624	711	11	-	28,294		

* <http://archives.youngnak.net/cybr/MainIndex.jsp> (2014. 08. 07)

수립하는 수집전단계와 실제수집단계와 수집 후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한 수집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수집방법은 이벤트 계획

을 수립하여 수집하는 방식이다. 영락교회 기록관에서는 2013년에 '영락인 메모리 캠페인'을 기획하여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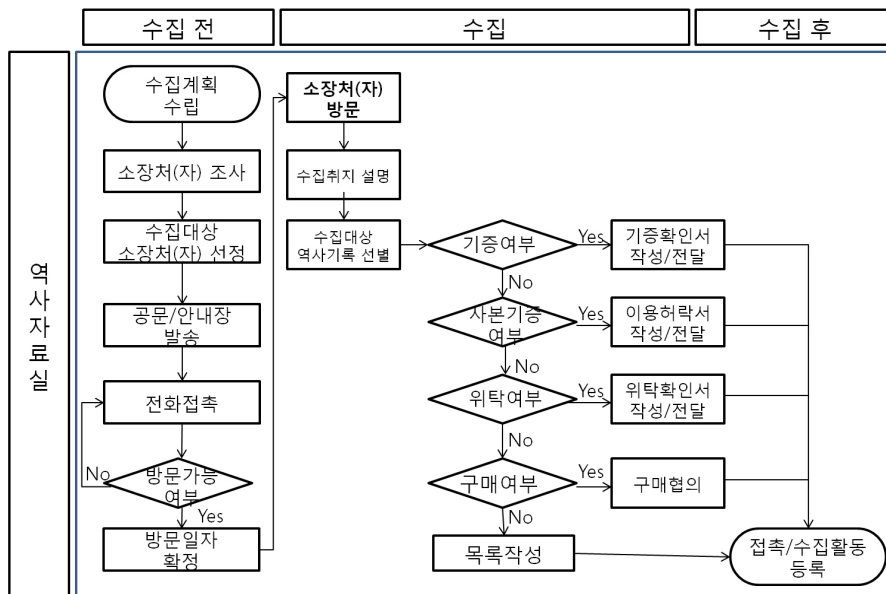
3.2 수집 절차

다음은 영락교회의 기록물 수집 절차이다. 수집정책을 세운 후, 본격적인 수집을 위하여 수집절차에 따라 수집행위가 이루어진다. 영락교회는 공식적인 수집정책을 공표하고 이에 따른 정기적인 기록물 수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교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기록물 수집을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영락교회의 수집절차는 다른 개별 교회에서 수집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참고 될 수 있도록 본 논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영락교회 기록관은 기증을 통한 수집 시 2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일반적인 수집절차에 따른 수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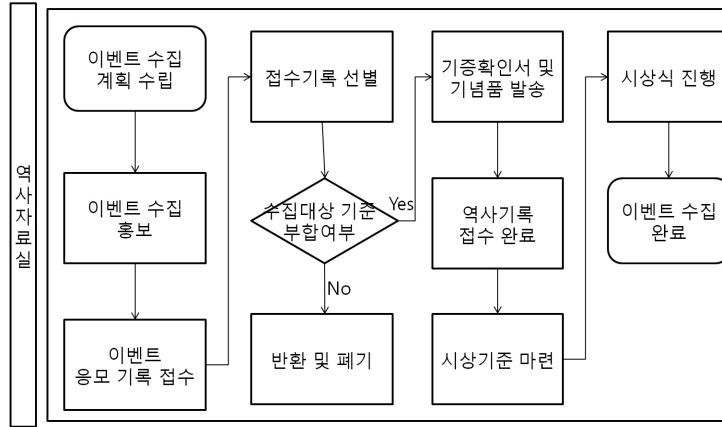
영락교회는 개인·기관 등으로부터 수집을 받을 시, <그림 1>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수집활동을 진행한다. 먼저 수집 전에 수집계획

을 수립하고,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소장처를 조사하여 공문 혹은 안내장을 발송한다. 이후, 전화 접촉을 통하여 수집가능 여부를 확인 후 면담 일정을 잡는다. 실제 수집은 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먼저 소장자에게 수집취지를 설명하고 수집대상 역사기록물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 후 기증·위탁 등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증확인서 혹은 위탁확인서를 전달한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된 후 수집활동을 등록함으로써 수집활동이 종결된다.

이에 더해 영락교회 기록관은 기록물의 수집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기록물 수집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벤트 수집의 경우 이벤트 수집 계획 수립, 이벤트 홍보, 기록물 수집 및 접수의 과정을 거친다. 접수받은 기록물 중 수집대상과 부합하는 기록물을 선정하고 기증자에게 기증의사를 확인한 뒤 기증확인서와 기념품



<그림 1> 일반적인 수집 절차



〈그림 2〉 이벤트 수집

을 증정한다. 기록관은 2013년 12월에 ‘영락사 메모리 캠페인’을 통해 이벤트 수집을 수행한 적이 있으며 영락교회의 소식지인 ‘만남’지나 주보를 통해 이러한 이벤트 수집을 홍보한 적이 있다. 영락교회 기록관은 2013년에 시작한 이벤트 수집을, 1년에 한 번씩은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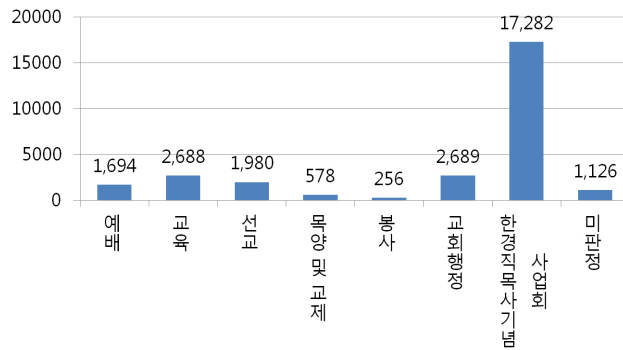
3.3 기록물 분석

기록관의 수집정책 작성 시 수집초점과 우선 순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Ham은 수집정책 작성도구로서 컬렉션 분석과 기능 분석을 제안하였다. 기능분석은 조직 및 기관이 실제로 수행하는 일에 관한 분석으로 기관의 목표에 따른 업무분석을 뜻한다. 기능분석은 기관의 전체적 구조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수집정책 수립의 배경자료를 제공한다. 대부분 교회는 사명과 기능면에서 유사하기에 2장에서 살펴본 교회의 기능분석으로 분석을 대체한다. 컬렉션 분석은 기록물을 주제, 시간

적 범주, 유형 등으로 분류하여 양적인 특징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수집정책 수립시, 수집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만들 수 있다 (Ham, 1993/2002).

영락교회 기록관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재직부서로부터 이관받은 총 555상자의 역사기록물을 DB형태로 등록하였다. 그래서 총 28,291건의 역사기록물이 등록되었다. 등록 현황을 토대로 영락교회 기록관의 컬렉션을 기능별, 시대별 그리고 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기능적 출처에 따른 분류이다.

영락교회의 기능은 주로 예배, 교육, 선교, 목양 및 교제, 봉사, 교회행정,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로 나뉜다. 기록물 중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로부터 나온 기록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는 1973년 환경직 목사의 은퇴를 즈음하여 발족하였다. 본 사업회는 초기에 목회자연수회를 중심으로 교역자들의 계속교육과 한국교회에 환경직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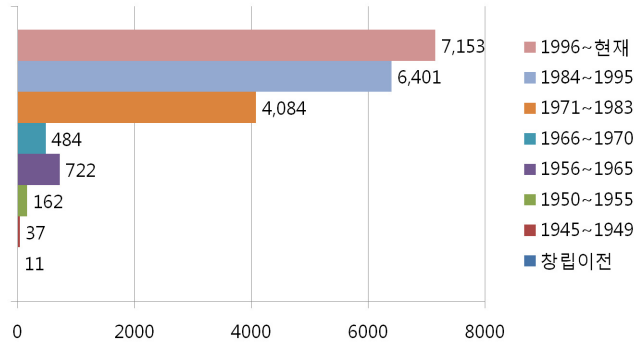
〈그림 3〉 기능적 출처에 따른 분류

회자상을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각종 출판 사업 등을 통해 환경직 목사의 삶을 알리고 전파하는 데 힘써왔다. 본 사업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교육, 장학, 홍보, 출판사업이다. 이중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1월 1일에 영락교회에 역사자료실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73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던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의 활동결과물이 역사자료실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의 기록물은 영락교회 기록물 중 가장 핵심적인 컬렉션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영락교회 기능 중 봉사기능과 관련된 기록물은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한다. 1945년 혼돈의 시대에 설립된 영락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피난민과 고아, 노인 등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해 복지시설을 설립하는 등 사회적 봉사 기능에 매진하였다. 교회 설립 초기에 설립된 영락보린원(1947), 영락모자원(1951), 영락경로원(1952) 등이 현재는 영락교회 산하기관인 사회복지재단 내에 운영되고 있다. 영락교회는 다양한 사회사업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1966년 9월

부터 매주 화요일을 ‘헌신의 날’로 정해 의료봉사, 대학생 및 청년 봉사활동, 산하기관 내에서 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봉사를 수행하였다. 영락교회의 기능 중 사회 봉사기능은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회적 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영락교회의 봉사기능은 영락교회의 초기사역 및 성도들의 활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중요기록물이므로, 수집정책을 통해 관련된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입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영락교회 기록관에 등록된 기록물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등록된 기록물을 시대별로 살펴볼 때, 가장 많은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시기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이다. 그리고 1971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록물도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반면 창립이전부터 1970년까지의 기록물은 1971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물과 비교했을 때, 기록물이 현저히 적으므로 균형 있는 기록물의 수집측면에서 이 시기의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설립시기부터 1970년까지의 시기를 4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설립시기에는 영락교회의 모체가 된 베다니전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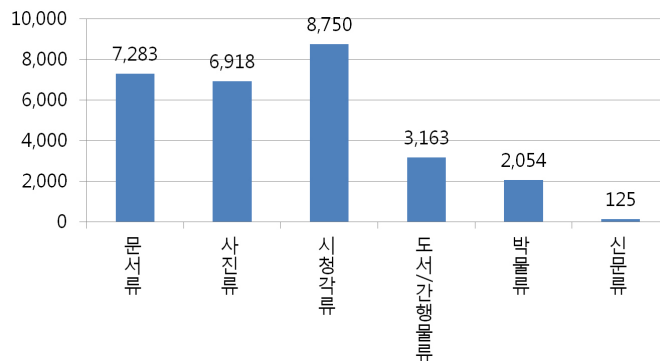


〈그림 4〉 기록물 시대별 분류

의 설립 및 활동, 광복 후 영락교회의 정착과정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다. 2시기는 6.25 전쟁시기로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각종 구호활동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3시기에는 영락교회의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한 활동, 정치적 상황 속에 성도 및 교회의 활동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시기인 1966~70년대에는 성도들이 교육과 봉사기능에서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이때 초기 영락교회 월간지인 〈영락월보〉가 발간되었다. 이 시기는 교회가 확장되는 시기로 교회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등록된 기록물을 형태별로 분류한 것이다.

영락교회의 기록물은 문서류, 사진류, 시청각류, 도서/간행물류, 박물관류, 신문류로 분류가 된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록물은 시청각류이고 그 다음으로 문서류와 사진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다른 기록물유형에 비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록물은 신문류로 125건 정도만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의 격변기에 설립된 영락교회는 교회 구성원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전



〈그림 5〉 기록물 형태별 분류

개하며 대규모 장로교회로 성장하였다. 또한 초대목사인 한경직 목사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일제 시대와 한국전쟁, 산업화 시대에 걸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리하여 한경직목사는 1922년 9월 28일 동아일보에 평양기독교청년회 주최와 동아일보 평양지구 후원으로 열린 평양웅변 대회에서 “단합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것을 시작하여 주요 언론매체에 약 930회 정도 기사화되었다. 그러므로 국내외적으로 영락교회와 한경직 목사의 영향력과 내용을 담은 신문류는 중요한 기록물의 유형 중 하나로 우선적으로 수집될 필요가 있다.

영락교회 기록관의 기록물에 대해 기능별, 시대별, 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특히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기능의 기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회 주요 기능으로 알려진 기록의 양은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균형 있는 컬렉션 수집을 위해서는 한경직 목사 개인 기록 수집과 더불어 교회 주요 기능과 관련된 기록물을 좀 더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4. 영락교회 수집정책 개발

4.1 영락교회 기록관 수집정책 개발

Ham(1993/2002)은 수집정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공통요소로 기록관 사명 및 목적에 대한 진술문(이하 기록관 사명문), 기록물 수집범위와 우선순위의

설정, 기록물 수집지침 등을 제시하였다.

4.1.1 기록관 사명문

기록관 사명문은 수집정책의 토대로, 기록관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명문에는 기록물 수집의 근거가 되는 법적 권한 및 행정적 권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록관이 모기관의 공식 기록관리 기관으로 업무과정에서 생산하고 보관된 모든 기록물이 기록관의 자산임을 명백하게 기술해야 한다(Ham, 1993/2002). 이 사실을 명문화해 놓지 않을 경우 기록의 수집업무뿐만 아니라 이후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 제공 등에서 많은 혼란과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Elizabeth, 1994/2003). 기록관 사명문에 포함되어 할 사항을 토대로 영락교회 기록관의 사명문을 작성하려면 영락교회의 사명과 연혁, 행정사 등을 살펴봐야 한다. 영락교회의 기본적인 정보를 토대로 영락교회의 기록관 사명문을 작성하면 <표 5>와 같다.

영락교회 기록관은 영락교회를 복원하여 정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일반 개별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육, 성도의 교제, 선교, 봉사의 4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기록관의 수집 활동은 이러한 기관의 사명을 뒷받침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명문은 기록관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4.1.2 기록물 수집분야 및 범주 설정

수집할 기록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수집정책의 핵심이다. 기록관은 수집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표 5〉 영락교회 기록관의 사명문

영락교회 기록관은 영락교회 설립시기(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교회의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인물, 단체 등의 기록물 중 영속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여 교회 구성원 및 연구자들에게 영락교회의 역사와 교회 구성원들의 생활양식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본 기록관의 설립 및 운영은 영락교회 행정장정 제7장 법인 및 기관 단체 제40조(법인·기관 단체)에 근거를 둔다.

본 교회 기록관은

- 영락교회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관이다. 따라서 기록관에서 수집한 모든 기록물은 영락교회의 공적인 자산으로 관리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집된 기록물을 평가, 이관, 정리, 기술 보존하고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 교회 기록관 및 기독교 관련단체 등 타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관이 필요한 기록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집 활동 수준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불필요한 기록물의 입수로부터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조용성, 2010). 영락교회 기록관은 수집분야를 두 분야로 나누어 범주화할 수 있다. 하나는 교회의 설립 및 발전 과정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경직 목사'와 관련된 것이다. 전자는 시간적 범주와 주제적 범주, 후자는 시간적 범주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1) 교회의 설립 및 발전과정에 따른 수집범주
교회의 발전과정과 관련해서 기록물을 다큐멘테이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1945년

교회 창립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 발전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회의 설립 및 발전과정에서 일어난 활동이나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활동한 영락교회 성도들 특히 영락교회 직분자들(장로, 권사, 집사 등)의 기록을 다큐멘테이션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락교회 역사는 대략 일곱 부분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이는 영락교회 기록관의 시대분류에 따른 분류를 참고한 것이다. 1945년부터 영락교회의 발전양상에 따라 1940년대 초기 해방공동체의 성립, 1950년대 정착과 성장, 1960, 70년대 교단의 확장과 198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세대를 향한 비전으로 범주화하여 기록물을 분류하고 있다.

〈표 6〉 영락교회의 시간적 범주

시간	시간적 범주
1945년 ~ 1949년	신앙과 해방공동체로 세워진 영락교회
1950년 ~ 1955년	시련속에 성장한 영락교회
1956년 ~ 1965년	말씀공동체로 거듭나는 영락교회
1966년 ~ 1970년	희생과 헌신으로 성장한 영락교회
1971년 ~ 1983년	한국사회와 교회를 이끈 영락교회
1984년 ~ 1995년	새로운 세기를 향한 영락교회
1996년 ~ 현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영락교회

이러한 시간적 분류 하에 각 시대별 주요 인물과 사건, 교회조직 내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들과 관련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주요 인물 및 사건, 활동과 기타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영락교회, 1998). 첫째, 교회 설립 및 발전과 관련된 인물로는 영락교회 창립위원과 성도, 역대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와 교회의 주요인물이 있으며 이들은 시대별로 약 37명에 이른다.

둘째, 기록관에서 주요하게 선정한 교회사적 주요사건은 주일선거반대운동, 6.25수난과 피난지 영락교회, 4.19혁명과 김치호 순국, 박조준 목사 외화 밀반출사건과 사임 등이 있으며 이들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역시 수집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교회 내 조직 활동으로 영락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사명과 관련된 부서들이 존재하고 교회 외부적으로는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산하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 내부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산하기관의 수집은 배제하기로 한다. 영락교회의 각 부서들은 전도, 봉사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많은 기록물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서의 기록물들은 현재

교육, 봉사, 선교 등의 교회 기능면에서 분류·관리되어 지고 있다. 조직 활동과 관련된 수집 대상으로 청년부, 전도회, 교회학교를 선별하였다. 영락교회에서 청년부는 설립 시부터 가장 주축이 되었던 구성원으로서 초창기 베다니 청년회로 활동하였다. 베다니 청년회는 복음전도와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신탁통치 반대운동 등을 펼쳤다. 전도회는 영락교회 초기부터 의료선교를 포함하여 방송선교, 해외선교 등의 많은 활동을 하였다. 교회학교는 교회의 사명과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담당하여 교육하는 일을 담당한다. 교회 내 조직 활동과 관련한 수집범 주로 청년부의 구성 및 활동, 전도회의 활동, 교회학교의 활동,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주요 컬렉션으로 간행물을 들 수 있다. 영락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매주 생산되는 교회 주보를 비롯하여, 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발간한다. 이러한 간행물을 통해 교회 구성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통 및 공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영락교회는 1958년 창립된 장년면려회의를 통해 기관지를 최초로 발행하였다. 장년면려회는 신학훈련, 평신도 교양 강좌, 전도활동, 성경책보내기운동 등 다양한

〈표 7〉 교회 설립 및 발전과 관련된 인물

직분 및 주요인물		교회 설립 및 발전과 관련된 인물
창립위원 및 성도		윤하영, 이재명, 백경보, 이영근, 이창은, 정재숙, 노재현, 안국보, 서인철 등
사역자	역대담임목사	강신면(1947~1955), 박조준(1973~1984), 김윤국(1985~1987), 임영수(1988~1997), 이철신(1998~현재)
	부목사	박창목, 이응화, 김종섭, 이종성, 홍동근, 이선영, 노기원, 박조준, 김윤근 등
	전도사	윤병주, 김화진, 이동순, 최신은, 정용태, 조석육 등
주요인물		윤병주 전도사, 박창목 목사, 김응락 장로, 김창화 집사, 김치호, 박덕모 장로 등

평신도 운동을 이끌어갔다. 장년면려회는 독자적으로 <면려>지를 교회 내 월간지로 발간하여 교회 내 여러 소식과 신앙간증을 수록하였다. <면려>지는 창간 이후 1964년 장년면려회가 해산될 때까지 37호까지 결호 없이 매월 발행하였다. 장년면려회 해산 이후 교회 간행물은 <영락>(1964.08)으로 계속 발행되었다. <영락>은 2년 동안 발행되다가 영락교회의 전체적인 기관지 성격으로 강화되면서 <영락월보>로 제호를 변경하였다. <영락월보>는 명실상부한 영락교회 기관지로서 교회소식과 각 기관의 활동과 행사 안내, 성도 간의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영락월보>는 제호 변경 후 1년 만인 1969년 다시 <영락>으로 환원하여 1974년까지 발간되다가, 그 후 <만남>으로 제호를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영락교회, 1998). 영락교회의 월간지는 그 시대의 교회 상황과 성도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있는 기록물로서 주요 수집범주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평신도 교육원에서 펴낸 <평신도와 삶> 시리즈, <오늘의 말씀>, <상담 성경 안내서> 등도 수집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2) 한경직 목사의 생애와 수집범주

교회사 전반에 대한 기록물 이외에 영락교회에서 수집해야 할 중요한 수집대상 기록물은 한경직 목사와 관련된 기록물이다. 한경직 목사는 영락교회의 설립 및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로 영락교회에서도 한경직 목사에 대한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다.

영락교회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와 관련하여 다큐멘테이션 할 수 있는 내용은 한경직 목사의 출생부터 소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서 찾

을 수 있다. 한경직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4개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출생에서 투병생활까지(1902-1932)

한경직(韓景職 · 1902~2000)목사는 1902년 12월 29일 평안남도 평원 공덕면 간리마을에서 한도풍과 청주이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910년 마펏 선교사가 세운 진광소 학교, 1917년 남강 이승훈 선생과 고당 조만식 선생이 계신 오산중학교에 차례로 입학하여 신학문과 기독교를 접했다. 그 후 1921년 숭실 대학교 이과에 입학하여 기독교청년회장으로 활동하고 전국 대학생 웅변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설교자로써의 자질을 보였다. 1925년에는 미국 애펠리아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교를 차례대로 거치며 인문과 학과 신학을 공부하였다. 그러다 갑작스런 병세로 인해 1929~1932년 3년간 투병생활을 하게 된다. 이 시기 주요 수집대상 기록물은 숭실 대학교 및 미국 유학시절 학문 활동 및 수상업적과 YMCA 활동 및 설교에 관한 기록물이다.

(2) 신의주 제2교회 목회(1933-1944)

한경직 목사는 1932년 숭인 상업학교 교목 겸 교사직을 위임하다가 1933년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였다. 신의주 제2교회에서의 목회는 10년간 지속되었고, 그 사이 1939년에 신의주 보린원을 설립하였다. 이 시기 주요 수집대상 기록물은 신의주 교회 사역 관련 기록물 및 설교집이 있다.

(3) 영락교회 목회(1945-1972)

한경직 목사는 1945년 12월 영락교회의 전신인 서울 베다니전도교회를 창립하여 1972까

지 27년간 목회직을 수행하였다. 서울 베다니 전도교회는 사회적 격변기에 설립된 교회로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출발하였다. 당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 많은 월남민이 모였고 이들을 위해 교회는 다양한 구제활동을 하였다. 1947년에 대광중고등학교와 영락보린원, 1952년에 영락경로원과 영락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1954년에 영락 모자원을 설립하였다. 1969년에는 양육과 전도의 차원에서 영락여자신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한경직 목사는 목회 사역이외에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였다. 1950년에는 학교법인 보성학교의 이사장과 CCF(기독교 아동복지 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1953년에는 홀트 양지회 이사장, 선명회 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 1954년에는 숭실대학교를 재건한 후 학장으로 취임하였고 1955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제40회 총회장이자 한국 기독교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이외에 많은 직책을 맡아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기록물로는 십자군 전도대를 조직하여 전도집회를 개최한 활동기록물과 밥피어스와 함께 설립한 선명회(현. 월드비전)의 구제 및 선교 활동의 기록물, 숭실대학교의 학장으로써의 활동과 40대 총회장으로 활동했던 기록물 등이 중요한 기록물로 수집될 수 있다.

(4) 영락교회 원로목사에서 소천에 이르기까지(1973-2000)

한경직 목사는 영락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된 후에도 많은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다. 1973년에는 아세아연합 신학원 이사장과 군 복음화 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시고 1976년에는 고당 조만

식 선생 기념사업회 총재와 한국 외향 선교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셨다. 1985년에는 서울여자대학교와 숭실대학교를 포함해 학교법인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한국교회의 거목으로써 많은 사회봉사와 교육, 구제활동 등에 전념한 한경직 목사는 그 노고를 인정받아 1992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일컬어지는 템플상을 수상하였고 1998년에는 대한민국 건국공로상을 수상받았다. 이 시기 한경직 목사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설교와 특강을 했다. 이러한 특강 및 설교를 위해 준비했던 설교자료 등은 중요한 기록물로 수집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경직의 '교직자의 자세', '하나님 사랑' 등의 저서는 수집해야 할 중요한 기록물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각종 직책을 맡으며 활동했던 기관의 당시 기록물도 중요한 수집 기록물이다. <표 8>은 앞서 제안된 수집범주를 바탕으로 영락교회 기록관에서 예상 가능한 수집내용을 기록물 유형별로 나열한 것이다.

각 기록물의 수집은 교회기록관의 수집범주를 고려하여 수집하되, 수집대상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행정적 가치·증거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고려하여 수집해야 한다. 역사적 가치는 미래 이용자들에게 역사적 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가치로 영락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 담긴 신문류 및 간행물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행정적 가치는 업무적으로 활용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각종 회의록과 보고철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증거적 가치는 기록을 생산한 개인이나 교회 조직, 운영을 비롯한 여러 활동의 증거로서의 가치로 각종 행사 사진 및 시청각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표 8〉 영락교회 기록관 수집 대상 목록

기록물 유형	수집 내용
문서류	- 장로회의와 관련된 서신 및 보고서 - 세례, 결혼, 교인자격부여, 사망에 관한 등록부 등 - 영락교회 및 교회행정과 관련된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서
사진류	- 교회 예배 및 행사와 관련한 가치있는 사진 및 필름 - 역대 담임목사 및 설립인물에 관한 사진 - 교회 건물 설립 및 개조에 관한 사진 - 한경직 목사의 생애활동에 관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 및 필름 등
시청각류	- 영락교회 역대 담임목사의 설교 및 음성파일 및 동영상 - 영락교회 행사 및 사업관련 시청각 기록물 등 - 한경직 목사에 관한 영상 및 영화 등
도서/간행물류	- 영락교회 역사에 관한 도서 및 간행물 - 주보, 월간지(먼려지, 영락월보 등) 및 교육 출판물 - 한경직 목사의 저작물(설교집 및 도서, 찬송시 등) 및 편지 - 한경직 목사에 관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 및 도서 등
박물관	- 역대 담임목사 명패, 설교노트, 설교테이프 등 - 행사 현수막, 홍보지, 기념품 등 - 한경직 목사가 사용했던 설교노트, 만년필, 시계, 메모노트 등
신문류	- 영락교회 봉사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일간지 및 신문 - 한경직 목사의 글을 투고한 신문 - 한경직 목사의 활동 및 추모에 관한 신문

4.1.3 영락교회 기록물 수집 시 고려사항

수집해야 할 기록물의 양은 방대하고 기록물 수용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록관은 수집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요한 기록물을 중점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Ham의 기록물 우선순위 기준을 참고하되, 영락교회 기록관의 컬렉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컬렉션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설정

앞서 영락교회 컬렉션 분석을 기능별, 시대별, 형태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능별 컬렉션에서는 ‘봉사기능’, 시대별 컬렉션에서는 ‘1945~1970년의 기록물’, 형태별 컬렉션에서는 ‘신문류 기록물’이 현저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교회의 기능 중 ‘봉사기능’

은 초대교회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한 중요한 기능으로 교회는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를 함으로써 이 기능을 행사한다. 특별히 영락교회는 사회의 격변기인 1945년에 이북에서 월남한 월남민들의 신앙공동체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업, 의료 봉사 사업 등 많은 사회적 봉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회적 봉사활동에 비해 관련 기록물의 양이 적으므로 봉사기능에 대한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1945~1970년의 기록물’이 부족한데 이 시기는 6·25전쟁이 발발한 시기임과 동시에 교회가 세워져 교회조직이 체계화되는 시기로 피난지 영락교회가 세워지는 등 영락교회의 초기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생산된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신문류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영락교회의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는 영락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영락교회 자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로써 성장하였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이에 '한경직 목사' 및 '영락교회'와 관련된 '신문류 기록물'은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할 중요한 기록물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한경직 목사가 사역했던 당시 영락교회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한경직 목사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써 많은 직분을 수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므로 한경직 목사가 사역했던 시기의 기록물들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한경직 목사의 삶을 다큐멘테이션 할 필요가 있다.

2) 타기관과의 협력

기록물 수집을 위해서는 타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기록관은 타 기관과 중복되는 수집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신윤희, 2007). 기록관은 타 기관과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수집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조용성, 2010). 또한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기록물을 요구하는 이용자를 타 기관으로 인도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만족을 높일 수 있다. 영락교회 기록관의 협력기관으로는 한경직 목사와 관련된 기관과 한국교회 역사기관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한경직 목사를 기념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송실대 한경직 기념관과 추양선교재단이 있다. 송실대 한경직 기념관은 1대 학장이자 5대 이사장으로서 한경직 목사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양선교재단은 추양(秋陽) 한경직 목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이다. 2006년 기념관을 설립하여 개인유품 및 사진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교회 역사기관으로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기독교역사 문화유산을 수집 및 보존하고자 설립되었다. 2014년 건립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까지 교회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여 건립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영락교회 기록관은 관련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분석하여 수집 및 협력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3) 기록물의 처분

수집정책에는 수집한 기록물 중 관련성이 적거나 보유하기에 부적절한 기록물 처리에 관한 사항, 즉 원하지 않는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장윤희, 2005). 기록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 처분은 보존 기록물 중에서 기관에서 원하지 않는 기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다. 수집정책상에는 처분의 목적, 기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식에는 폐기, 기증자에게의 반환, 유관 기관에의 양도, 매각 등의 방법이 있다(조용성, 2010). 영락교회 기록관에서도 이러한 처분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기록물들을 처분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기증되어 수집된 기록물의 경우 기록물 평가를 통해 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영락교회 기록관에 기록물을 기증하는 기증자와의 기증계약을 체결 시, 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불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설립·운영 중인 영락교회 기록관은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록물 수집에 관한 체계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영락교회 기록관의 수집정책을 마련하고자 교회의 기능적 분석과 컬렉션 분석을 토대로 기록관의 수집정책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수집정책 개발 시 기록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해, 수집범주에 대한 구체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4.2 교회기록관 수집정책 개발시 고려사항

영락교회 기록관의 기록물과 수집현황을 살펴본 결과 원활한 교회 기록 수집을 위해서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수집정책의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에 따른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록수집에 근간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회기록관의 수집정책 개발 시 참고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4.2.1 교회기록관 사명문

역사가 깊은 교회들은 교회 역사책 발간과 더불어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기록관은 오래된 역사적 사료들을 단순 보관·전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교회기록관의 장기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다 나은 기록물의 확보를 위한 수집이 필요하다. 교회기록관에서 수집 행위를 할 경우 주로 교회의 주보나 소식지에 게재하는

식의 이벤트성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되는 기록물이 일정한 목적이나 기준 없이 수집될 경우 불필요한 기록물이 수집될 우려가 있다. 불필요한 기록물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관의 사명문을 작성해야 하며, 사명문은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록관 설립 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개 교회 기록관은 구체적인 사명문을 작성하지 않고, ‘교회기록의 보존과 후대에 전승’이라는 막연한 목표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교회 기록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기반으로 사명문을 작성하여 기록관 운영의 토대를 삼아야 한다(Wilsted, 1992/2004).

- 이 기록관(기관)은 왜 존재하는가(이 프로그램은 왜 만들어졌는가)?
- 어떤 집단, 활동, 그리고 경험을 도큐멘테이션 하는가?
- 어떤 기록을 수집하는가?
- 어떤 집단과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가(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
- 모기관은 어디인가?

교회기록관은 위의 질문을 기반으로 교회의 설립목적과 교회의 연혁 및 행사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명문은 기록관 담당자와 교회 운영인사들의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기록물의 법적·행정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4.2.2 교회기록물 수집분야 및 범주 설정

교회기록물의 수집범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주제에 의해 수집범위를 정하는 방식, 출처에 의해 수집범위를 정하는 방식, 그리고 기능 및 활동에 의해 정하는 방식이 있다. 공공기관 기록관에서는 주로 출처에 의한 수집 방안을 많이 사용하며 이는 인사부, 행정부, 재무부 등의 출처에 의해 수집범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교회기록관의 경우 기능 및 활동에 따라 수집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예배관리, 목양, 사회봉사, 교육, 교회행정 등으로 수집범주가 구성된다. 교회기록관은 교회의 사명 및 기능이 전반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교회의 기능에 따른 수집분야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다양한 활동은 종종 각각의 기능들과 혼합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회의 교육적 기능인 수련회의 경우, 수련회 기간동안 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회의 기능들이 겹칠 경우 그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선택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교회는 부서마다 다양한 활동이 새로 신설되거나 폐지되기 때문에 주제별 범주보다 청년부, 장년부 등의 출처별 범주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교회기록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회의 경우 보통 100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하여 교회 역사책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경우, 개별 교회의 역사책의 시간적 분류를 활용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교회의 기록관은 교회의 행정 및 활동에 따른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설립 및 운영의 핵심적인 인물의 교회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분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의 경우처럼, 개별 교회의 핵심인물이 한국교

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인 경우 인물의 생애와 관련하여 시간적 범주로 수집할 수 있다. 기록물 수집분야를 설정한 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기록물을 수집하여야 한다. Ham(1993/2002)은 우선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기록물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기록관의 사명 및 목적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기능이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록물
- 기록관에 이미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기능이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록물
- 적기에 이관되지 않을 경우, 분실될 위험이 있는 기록물
- 연구 목적상 추가적인 도큐멘테이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로서 연구자들의 수요가 높은 기록물
- 아카이브즈가 아닌 정보원(예를 들면 신문, 정기간행물, 단행본, 각종 출판물) 속에 적절하게 도큐멘테이션된 기능이나 주제에 관한 기록물

교회기록관은 설정된 수집범주의 기록물들 중 최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할 기록물들을 선정하여 기록관의 기록물의 가치와 서비스를 높이고, 적기에 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3 교회 기록물 수집 시 고려사항

교회기록관의 수집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Ham, 1993/2002). 먼저 수집정책 개발 시 기관의 물리적, 인적 요

소를 고려해야 한다. 즉 수집정책은 기록관 서고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수집정책은 기관의 시설, 환경, 인력 구성 등 수집기관의 역량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교회기록관은 시설, 환경, 인력 면에서 역량이 부족한 편이다. 시설 면에서 대부분 교회기록관은 건물의 1개 층 정도만을 서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력 면에서도 기록관리사 1명과 여러 봉사자들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수집기관으로써 역량이 부족한 편이다. 수집기관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였을 때, 교회기록관은 수집범위를 보다 제한시킨 한정성을 갖춘 수집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수집정책은 '정보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제공 가능한 정보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타 기록관의 수집대상 기록물이나 소장기록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집해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가 기록관들 간에 유사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아키비스트는 타 기록관의 수집 기록물이나 소장 기록물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별히 교회기록관의 수집정책 개발 시 타 기록관의 소장기록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각각의 개별 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개별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유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타 기록관의 소장기록물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상부상조하여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네 번째로 기록관에 보존 중인 기록물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현 소장물의 분석'이 필

요하다. 이는 컬렉션 분석과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할 기록물의 범위를 한정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교회 조직이 지니는 가족공동체적 특성과 비간헐적인 생산·수집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집정책을 통해 수집되어야 하는 생산·수집 기록물이 목록화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목록화를 통해 기록물의 수집수준을 필수, 권장, 재량으로 구분하여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정은진, 2011). '필수'는 수집 노력에 많은 적극성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필수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기록물이다. '권장'은 필수적으로 수집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건이 되면 가능한 수집하도록 권장하는 기록물이다. '재량'은 '필수'나 '권장'에 비해 수집 중요도가 떨어지므로 기록관의 여건에 따라 재량껏 수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할 기록물을 중점적으로 수집하되 필수와 권장, 재량으로 수집 수준을 나누어 수집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기록물 관리에 있어 교회 구성원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교회기록물의 생산 및 수집의 중요성 등을 교육시키는 일도 요구된다. 교회조직은 각각의 부서마다 부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등 다양한 대표들이 존재한다. 각 부서를 관할하는 대표들이 부서 활동마다 발생하는 기록물을 생산·수집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교회기록관 담당자는 어떠한 기록을 생산 및 수집해야 하는지를 각 부서의 대표들이 알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교육하도록 한다. 각 부서의 생산·수집된 기록은 기록관 담당자가 1년에 1번 통보하여 대표가 일괄 정리하여 기록관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회기록관

은 개인이나 교회 관련 단체로부터 기증을 받을 시 기증 확인서의 기록물 공개 수준에 체크하도록 하여 기록물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에 대한 기증자의 뜻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교회기록관은 별다른 기준 없이 수집이 이루어지므로, 위의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수집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수집활동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교회기록물 수집에 있어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수집정책 개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장기적인 기록관리 관점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수집활동을 전개하려는 교회기록관에 수집정책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서양의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된 지 13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국 기독교의 시작은 선교사가 활동하기 이전 먼저 한 쪽짜리 성경, 쪽북 음성경이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퍼짐으로 이루어 졌다. 교회 조직이 확장되고 체계화됨에 따라 교회 기록물도 내용과 유형 면에서 다양해 졌다. 이러한 교회기록물은 기독교 역사와 선교사들의 활동, 기독교 평신도들의 신앙적 삶을 보여주는 중요 기록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껏 교회가 지닌 가족공동체적 특징과 교회 기록관의 재정·인력·자원에서 가지는 한계로 인해 체계적인 수집정책을 수립하거나 명문화된 절차를 거쳐 기록물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수집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Ham(1993/2002)의 수집정책을 바탕으로 영락교회 기록관 수집 정책에 다음과 같이 적용, 교회 기록물 수집정책을 분석했다. 첫째, 교회기록관 사명문은 교회의 사명 및 연력, 행정사 등의 정보를 토대로 기록관 사명문을 작성하여 기록관 설립 및 운영에 근거를 삼도록 하였다. 둘째, 기록물의 수집범주는 두 분야로 나누어 범주화하였다. 하나는 교회의 설립 및 발전과정과 관련한 것으로 시간적 범주와 주제적 범주를 통해 접근하였고, 다른 하나는 환경적 목사와 관련한 것으로 시간적 범주를 통해 접근하였다. 셋째, 기록물 수집의 우선 순위는 교회의 기록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교회의 기능별 컬렉션에서는 '봉사 기능', 시대별 컬렉션에서는 '1945~1970년대'의 기록물, 형태별 컬렉션에서는 '신문류'의 기록물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 이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넷째, 교회기록관은 유사한 기록물을 수집하는 타 기관과 협력하여 수집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혼합형 기록관인 교회기록관의 수집정책을 개발함으로써 기록물의 생산 및 수집활동에 있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회의 아카이브즈 기록물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현용기록의 이관 및 수집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향후 균형감 있고 미래지향적인 기록물 수집을 위해 과거 생산된 기록뿐만 아니라 현용, 비현용 기록의 수집방안 역시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타 종교 기록관 및 민간기록관의 수집정책 개발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집정책의 적용이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참 고 문 헌

- 강순화 (2003). 교회 기록관리현황과 기록관 설치의 방향: 목포의 개신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 구본윤 (2009). 대통령 기록관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 기록관리학과.
- 김선미 (2004). 가톨릭 교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교구기록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김은영 (2013).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한 영락교회 사회복지재단 기록관리 개선방안: 수집전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1998). 영락교회 50년사. 서울: 영락교회.
- 마원준 (2004). 한국 개(個)교회 기록물의 기능분류 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박진희 (2006). 외교기록물의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손성호 (2008). 민간소장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신윤화 (2007). 매뉴스크립트컬렉션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 김달진 문학관을 사례로.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 양상미 (2008). 대학기록관 기록물 수집정책의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유영산 (2005). 매뉴스크립트 수집절차 체계화방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이성희 (2009). 교육청기록관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이정희 (2009). 병무행정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5-32.
- 임선화 (2005). 수집기록물관리시스템 모델링.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장윤희 (2005). 대학기록물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1), 23-46.

- 정상화 (2008). 대통령 기록물의 수집 전략: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기록보존학과.
- 정은진 (2011). 연극기록물의 수집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9, 35-78.
- 정지연 (2007). 근현대 기록물 수집활동 체계화 방안: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8, 91-121.
- 조용성 (2010).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233-278.
- 최유태 (2010). 개신교 교회 기록물 관리의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최희진 (2005). 지방역사기록물 수집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교회 기록물관리 방법론 연구.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기록관리론. 성남: 아세아문화사.
- 한수연 (2005). 기록물 수집정책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 허은정 (2007). 교회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록관 설립 및 운영방안: N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 Ham, F. Gerald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강경무 번역). 서울: 진리탐구. (원전 발행년 1993).
- Schwirthlich, Anne-Marie, & Reed, Barbara (1993). Managing the Acquisition Process. In Keeping Archives, 137-156. Edited by Judith Ellis. Port Melbourne, Victoria: DW Thorpe.
- Wilsted, Thomas (2004). 기록관경영. (이소연 번역). 서울: 진리탐구. (원전 발행년 1992).
- Elizabeth, Yakel (2003). 아카이브 만들기. (강명숙 번역). 서울: 진리탐구. (원전 발행년 1994).

[웹사이트]

- 5·18기념재단. 검색일자: 2013. 12. 21. <http://www.518.org/ease/menu.es?mid=a10207010100>
- 영락교회사료관. 검색일자: 2014. 1. 24. <http://archives.youngnak.net/cybr/mainIndex.jsp>
- 한경직목사홈페이지. 검색일자: 2015. 3. 10.
http://hankyungchik.org/cont/cont01f.aspx?menu_top=cont&menu_sub=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Yong-seong (2010). A Study on the Collecting Policy of Oral History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5, 233-278.
- Choi, Hui-jin (2005). A Study on the Acquisition Policy for Local History Archives. M.A.

-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Choi, Yu-taek (2010).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Protestant Church. M.A.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Gang, Sun-hwa (2003). Church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nd How to Establish Church Archives in Mokpo. M.A.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 Han, Su-yeon (2005). A Study on the Components of Collection Policy of Records.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eo, Eun-jeong (2007). The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cords Center and Operation for Systematic Records Management of Church: Focused n-Church. M.A.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 Jang, Yun-hui (2005). A Study on the Collection Policy of Universtiy Archives: A Case Study of Hanshin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5(1), 23-46.
- Jeong, Ji-yeon (2007).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Collecting Process-Focus o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Journal of a Study on Humanities Institute, 18, 91-121.
- Jung, Eun-jin (2011). A Study on the Acquisiton Methods of Theater Collections. Journal of a Study on the Archival Science, 29, 35-78.
- Jung, Sang-hwa (2008). Acquisition Strategy of President Related Records: Focused on President Lee Seung-man's Record Case. M.A.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im, Eun Young (2013). A study on improvement of records management social welfare foundation Young Nak Church through documentation strategy: focusing on acquisition strategy. M.A.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Kim, Seon-mi (2004). Study on the Management of Catholic Church's Records and Archives: Special Reference to the Diocese Archives. M.A.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Koo, Bon-yun (2009). A Study on the Collection Policy of Presidential Archives. M.A.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2013). The introduction to records management. Seongnam: Asia Cultural History.
- Lee, Jeong-hui (2009). A Study on the Acquisition Policy of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Manuscrip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9(1), 5-32.
- Lee, Seong-hui (2009). A Study on the Collection Policy of Records Centers in Offices of

- Education.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ym, Seon-hwa (2005). The manuscript management system modeling. M.A.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Ma, Won-jun (2004). A Study constructing a Function-Based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for Korean Individual Church. M.A.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Park, Jin-hui (2006). A Study on the Acquisiton Methods of diplomatic records.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hin, Yun-hwa (2007). A Case Study on the Manuscript Acquisition Policy: with Emphasis on the Kim Dal Jin Manuscript Collection. M.A.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 Son, Sung-Ho (2008). A study on the ways of collectiong presidential records in private possession. M.A.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The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Archives and Records (2004). A Study on Methodology of Records Management for Church. The Research Reports for the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Archives and Records13.
- Yang, Sang-mi (2008). A Study on the metho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ecord Collection Policy by University Archives.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oung-Nak Church as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98). Young-Nak Church 50Years. Seoul: Young-Nak Church
- Yu, Yeong-san (2005).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Manuscript Collecting Process -Focus on Archives of Korea Democracy Foundation. M.A.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